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4주일
제31권 4호(가해) 2010-12-19

[묵상]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

<12세기, 채색삽화, 바바리아 도서관, 뮌헨>

이 세상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광야에서 들려오는 예언자의 외침에,
각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자며
하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깨어있음과 회개를 이야기한 대림,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되돌아오지 않은
때아리에 불과하지는 않았을까?

성령이 그분 안에 오시고
그 성령이 인간이 되시어
구세주가 되시리니
구세주를 태중에 모신 아홉 달을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우리과 함께 계실 하느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
요셉은 어떤 생각으로 보내셨을까?

설렘과 간절함 거룩함 행복함

요셉과 마리아의 대림이

또한 나의 대림이기를.....

마지막 초를 밝히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어서 오소서!

만백성이 당신의 구원을 보리이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센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평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베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 성모회/자모회 •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센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탈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김순선 아네스, 이호에 안젤라, 한영우 요셉 & 박동렬 아네스
특전미사	(생) 이호순 프란체스카, 김스태판 프란치스코, 정해홍 요셉, 안상훈 라파엘
주 일 낮 미사	(연) 김경숙,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이상범 닐, 임안젤라, 김상익 베드로 & 경옥 테레사, 하현일 요셉 & 노향에 안나, 모은기 다두의 조상님들, 이현준 피터 & 이크리스찬, 문정곤 스테파노, 김복임 마리아, 엄도모테오, 김순선 아네스 (생) 새영세자들, 김준호 프란치스코 & 씨니 클라라 가정, 오명섭 미카엘 & 창에 안나 가정, 정연영 크리스티나, 석순영 아네스, 이덕철 루카 & 순자 비비안나 가정, 박진수 스테파노 & 혜경 레나타 가정, 권진열 피데스 & 병연 리디아 가정, 주성은 & 주루시아, 정원재 그레이스 & 김서량 토마스 가정, 글로리아 성가대, 정지영 테레사 & 염제임스,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서용숙 에스텔, 홍석인 체칠리아, 이호순 프란체스카, 문밥티스타 수녀,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7,10-14

화답송 ㉠영광의 임금 들어가시니,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1-7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1,18-24

영성체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영광의 왕	124
봉헌	368	270
성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291
파전	124	128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 안락사의 비극

더구나 안락사가 인내와 사랑으로 가족 구성원을 치료해야 할 친척들이나, 또는 직업 본분상 환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단계에 처해 있을 때라도 그를 돌보아야 할 의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질 때 그것은 더욱더 왜곡된 행위이다.

결코 안락사를 요청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일조차 없는 사람을 타인이 살해하는 형태를 띠게 될 때 안락사의 선택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의사들이나 입법자들과 같은 몇몇 사람들이, 누구는 살아야 하고 누구는 죽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역지를 부리게 될 때 그 방자함과 불의함은 절정에 달하게 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에덴에서의 유혹 앞에 서있다. 그 유혹이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창세 3,5 참조)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이다. 오직 하느님만이 삶과 죽음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다."(신명 32,39; 2열왕 5,7; 1사무 2,6 참조). 그러나 그분께서는 홀로 지혜와 사랑의 계획에 따라 그 권능을 행사하신다. 인간이 어리석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이 권능을 침해하게 되면, 그는 불가피하게 이 권능을 불의와 죽음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약한 사람의 생명은 강한 사람의 손에 맡겨지게 되고, 사회에는 정의감이 상실되며, 모든 참된 인간 상호간의 관계의 뿌리인 신뢰심이 흔들리게 된다.

67). 사랑과 참된 자비의 길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의 공통된 인간 본성은 이 길로 부름 받고 있으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주자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은 이 길 위에 전혀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다. 특히 철저한 좌절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을 때, 고통과 죽음과 최후의 대면을 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요구는 무엇보다도 시련의 때에 필요한 동료의식과, 동정과 지지에 대한 요구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졌을 때 계속 희망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탄원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환기시키듯이 "죽음 앞에서 인간 운명의 수수께끼는 절정에 달한다." 그러나 "인간 실존의 완전한 몰락과 전적인 소멸을 싫어하고 거부할 때 마음의 본능에 따른 이 판단은 옳은 것이다. 인간이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영원의 씨는 순수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기에 죽음에 저항하여 일어설 수밖에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본성적인 반감과 영원성에 대한 원초적인 바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빛을 받으며 실현된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약속하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약속한다. 이 승리는, 구속을 위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죄의 대가"(로마 6,23)인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부활의 보증이요 생명의 보증(로마 8,11 참조)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의 승리이다. (◆계속)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 구원의 신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탄생의 신비가 펼쳐집니다.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외아들을 나자렛의 한 연약한 여인의 배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으로서 말씀과 함께, 태초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오심, 강생의 신비에 마리아와 요셉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협력자로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명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십니다.

이 거룩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드님이 되십니다. 그래야 옛 예언이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태어나십니다. 이는 그분이 하느님과 동등한 분으로 자각됩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가지는 인간이시지만,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신 사건이기에, 그분의 탄생은 인간에게는 놀라운 일이며, 영광과 감사입니다.

구원의 신비에 개입하신 성령께서는, 마리아 배 속에 잉태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주님께서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꿈속에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주님께서 만민을 구원할 분, 모든 사람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 “예수”이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때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고하신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죄의 사함은 피를 흘리시는 당신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도 메시아의 사명이 요셉의 꿈속에 드러납니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 우리를 위안합니다. 죄의 용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이 따르지만, 그 용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부활하셔야 하고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아픔도, 기쁨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의미하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탄생의 신비 안에서 인간 구원과 신앙의 신비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역사로 임하시는 이 거룩한 탄생의 신비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새롭게 다시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추운 때에 가난한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성탄 선물을 준비하며, 그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친구가 있으면, 찾아가 화해를 청하고, 언제나 온유하고 친절한 삶의 자세를 가집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 오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신앙생활로 그분의 탄생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양해룡 사도요한 신부 /

서울대교구 선교전례사무부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천남숙 리디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이희경 크리스티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대림 시기 †

어느새 대림환에 마지막 흰색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흰색에는 기쁨, 현희, 희망, 순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성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비천한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 매일미사 중에서 -

- ◆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21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공동보속 : ㉠마태오복음서 통독 ㉡선행1회 ㉢주모경 중 둘 이상 선택
- ◆ 평일미사 시간 변경
 - 22일(수) : 저녁미사 7:30p로 환원, 미사후 연도/뷰잉
 - 23일(목) : 장례미사 9:00am(故김순선 아네스 님) 저녁미사 없음
- ◆ 성탄 밤미사 : 24일(금) 오후 9시
- ◆ 성탄 대축일미사 : 25일(토) 오전 11시(특전미사: 7시pm)
- ◆ 송년미사 및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 : 12월31일(금) 밤11시30분
* 24일/31일(금) : 아침 평일미사 없습니다.
-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1월1일(토) 오전 11시 (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없습니다. 특전미사 : 7시pm)

⊙ 새 영세자 축하합니다. ⊙

- ◆ 목요교리반 세례식과 축하식
 - 일시 : 오늘 주일(19일) 낮미사 중
 - 새영세자 : 강미순 미카엘라, 박성운 실비아, 백애불린 사라, 이인표 필립포, 이형삼 요셉, 이혜숙 요세피나, 정혜영 라파엘라, 최수현 베로니카, 김정수 시몬, 하애나 스텔라, 홍광선 요셉, 한장환 안토니오(이상 12명)
 - 세례식이 끝난 후 강당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새 교우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 ◆ 제단체 송년모임
 - 양업회 : 오늘 주일(19일) 오후 5시, 강당
 - 요셉회 : 12월26일(주일) 낮 12시30분, 강당
 - * 부부동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 성탄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19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소공동체 구역장/반장, 게시판 안내 참조
- ◆ 제대회 '성탄구유' Set 구입
올해 성탄구유를 새로 꾸밉니다. 비용은 제대회원들이 봉헌한 회비로 마련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대회 봉헌함은 사무실에 설치되어있으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 본당 설립 30주년 맞이 전 신자 친구약 통독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아 1년 동안 전 신자 친구약 통독을 실시합니다. 성서 읽기에 맞추어 알기 쉬운 해설을 주간별로 해드립니다. 성서 공부와 함께 성서 통독하실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시작 : 2011년 1월6일(목)
 - 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 오후 8시, 강당 (같은 내용을 오전/오후 두번 공부합니다.)
 - 지도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 주일학교 성탄축제 물적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 : 성모회, 대진회 이명렬 라파엘 님
- ◆ '백삼위 한인성당' 공식 사진 웹사이트 개설
우리 본당 공식 사진 웹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향후 성당에서 촬영하는 사진은 이 웹사이트에 별도 공지없이 등록됩니다. 인화를 할 수 있는 원본 그대로 게재되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인화하거나, 온라인에서 바로 인화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 <http://flicker.com/photos/103skcc>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19일(주일) : 토런스 동2반(우거지된장국 \$3)
 - 12월26일(주일) : 토런스 서2반(전주식콩나물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권순봉 권태만 김관기 김성일 김세련 김윤진 김정엽 김준호 김충섭 김현숙 김형순 노찬술 모은기 민소예 박선희 배기엽 배태임 변복순 소성덕 송재훈 신현화 유선식 이경용 이관웅 이귀란 이귀분 이용식 이일길 이재철 정순석 정열모 정해홍 정훈모 조준제 최길주 최미열 최희숙 하정화 한창주 한혜숙 이크리스 한길선례	합계 : \$5,875
미사헌금 : \$3,045		
성전헌금	고천용 권태만 김관기 김성일 김윤진 김정엽 김준호 김충섭 김현숙 김형순 노찬술 모은기 민소예 박선희 배기엽 배태임 변복순 소성덕 신현화 유선식 이경용 이귀란 이귀분 이용식 이재철 정순석 정열모 정해홍 정훈모 조준제 최길주 최미열 하정화 한창주 한혜숙 한길선례	합계 : \$3,605
감사헌금 : 박혜숙 스텔라		

공지사항

◆ 주일학교/한국학교 겨울방학

- 12월26일/1월2일 두주일, 수업 없습니다.

◆ 배론 청년회 회원 모집

"평범한 신앙생활은 거부하고 있는~데~"

- 청년이세요?
- 혼자 미사드리기 심심하세요?
- 토요일 밤을 뜻깊게 보내고 싶으세요?
- 주님과 함께하는 백삼위 청년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 * 배론 청년회 미사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교회로 많이 인도합시다.
- * 모임일시 및 장소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성당 강당
-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청년회장 ☎(310)650-6057
- 박소영 프란체스카 부회장 ☎(323)313-7255

◆ 2010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 중에 내주세요.

-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초 Income Tax Return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 기록(2010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남가주 소식

◆ 장애인과 은인을 위한 송년미사 및 송년의 밤

- 주관 : 남가주 한인 가톨릭 장애인 복지회
- 일시 : 12월26일(주일) 오후 5시30분
- 장소 : LA 아그네스 한인성당 회관
- 대상 :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 관심있는 일반교우들
- 문의 : 장애인 복지회 ☎(213)382-8806

◆ 미서부지역 한인 CLC 신년 특강

- 주제 : 성령의 선물, 일곱가지 이야기
- 일시 : 1월11일(화) 오후 7시
- 강사 : 이영석 신부
- 장소 : LA 아그네스 한인성당(2625 S. Vermont Av.)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침묵피정

- 일시 : 1월12일(수)~17일(주일)
- 장소 : 오렌지카운티 매리우드 피정의 집
- 주제 : '텅빈 충만' (이영석 예수회 신부 지도)
- 신청 :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이번 주 단체 모임

12월 사목회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소공동체 1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12/10(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12/11(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2/10(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	이진향 아메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2/18(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미카엘 316-7608 12/11(토) 오후 5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박진숙 로사 543-9051 12/13(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최옥희 테레사 423-9075 12/17(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김행선 올리아나 972-9193 12/8(수) 오전 10시30분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김희연 루시아 750-4051 12/11(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정동호 하상 바오로 780-9055 12/25(토) 오후 5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서창호 바오로 968-1344 12/17(금) 오후 7시30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도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12/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재일 미카엘 544-9460 12/10(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윤은정 미카엘라 265-0856 12/17(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12/14(화) 오전 10시30분

따뜻한 이야기

그해 겨울의 산타클로스

이해인 수녀

어려운 피난 시절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산타클로스의 선물

빨간 병어리 장갑
고운 물방울 무늬
가득한 털스웨터

아버지와 생이별한
여섯 살 소녀에게
머리맡에 놓인 그 선물은
참으로 정겹고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그 시절 산타클로스의
정체를 알게 된 지금
작은아버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의 창엔
따스한 불빛이 스며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겨울도 봄 같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겨울은 겨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눈빛을 보면 얼굴이 붉어지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할말을 다 할수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기억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가끔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다 주고싶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것만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에게 잘해주면 샘이 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딴 사람에게
잘해주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은 뻔히 볼 수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눈빛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같이 울게 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위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멋을 내게 되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슬플때 생각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고독할 때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길어도 짧게 느껴지지만
좋아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길면 넉넉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은
눈에서 부터 시작되고
좋아하는 사람의 시작은
귀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다 싫어지면
귀를 막아버리면 끝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눈꺼풀을 덮어도
포도송이 같은 구슬로 맺히는 눈물이 납니다.

◆자료 :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 좋은생각 -